

나 이제 죽을곳을 얻었노라

몽암 신덕순(?~1908.11)

우뚝 솟은 저 산이 하늘같이 높다지만
기세를 저뤄보면 어느곳이 웅장하신고
마침내 대장부가 죽을 곳을 얻었다면
몸 하나 던지기란 기러기새털보다 가볍다오

만가지일 생각하면 모두가 한 꿈이라
한양성 비바람은 정희도 아득하구나
아하 손에든 칼 한 자루 어디다 쓴단 말인가
아직도 조선의 하늘아래 백옥 흰빛을 비추누나

해설 : 지은이는 한말 항일의병으로 1908년 11월 왜적에게 피살. 순국하기까지 가산을 탕진해 가며 조국을 지킨 의사이시다. 이 시는 같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 염동균 지사에게 구술한 것을 몽암의 동생인 신의균에게 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감옥에서 남긴 몽암 신덕순의 유언 이기도한 '내 목이 잘릴지라도 순종하기는 어렵다. 전일 거사할 때 내 마음은 흥적 이등박문의 살을 씹어먹고 왜국 오적놈들의 살가죽을 벗겨 깔고 자서 우리 모국의 원수를 갚고 우리 삼천리 강토를 회복하여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다시 태평의 날을 보시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어찌 네놈들에게 순순히 굴복하겠느냐' 아 이 얼마나 애국충의에찬 울부짖음이나

-출전 <몽암창의사실>

2010 01*02

통권 49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국치 백년을 맞이한 우리의 결의 | 김자동

06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경술국치 100주년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삼용



12

독립운동

충효를 함께한 일광 정시해 의사 | 정만기

18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 박영민



24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칠레전투〉, 역사의 멈춰진 미래로부터

| 이두희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홍윙희, 박상희, 박관우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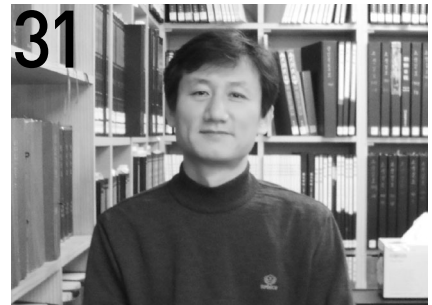
29 다시보는 좋은 기사
 ‘국치’ 100년, 속죄와 화해 | 이만열

31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친일인명사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밑거름
 | 박관우

35 청년특집 Campus Life
 젊은 그대,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 박상희

39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42 임정서가
 북우 계봉우의 자전적 기록 <꿈속의 꿈>



국치 백년을 맞이한 우리의 결의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금년은 ‘정술국치’라고 불리는 일제의 한국병탄(併呑) 1백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이 개시된 직후 한국정부가 1월23일 국외중립선언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초 인천에 군대를 상륙하여 서울까지 강점했다. 그 후 2월 말에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 이 ‘의정서’에 따라서 한국에 이미 진주한 일본군의 활동을 합법화 시키고 우리국토를 제멋대로 징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8월 22일에는 ‘한일협정서’ 또는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리우는 ‘한일외국인고문용빈(僱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일본인과 일본이 추천하는 사람을 한국정부의 재정·외교 등 주요부문의 고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상당부분의 지배를 확립한 후 러일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한국을 보호령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11월 17일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일본공사관으로 불러들여 보호조약의 승인을 강요했다. 일본군의 무력시위를 통한 압박을 받으며 진행된 이 회의에

서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와 법무부대신 이하영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고종이 불찬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하자 헌병사령관까지 대동하고 들어온 이토는 각 대신을 일일이 만나 찬부를 물어 대신 5명의 찬성을 받아냈다. 이들은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세순 및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5인으로 을사5적으로 남게 된다. 이 조약의 공식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으로도 불렸다.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고종은 끝내 서명을 거절했으며 국새도 왜놈들이 강탈하여 찍은 것으로 절차상 완전히 불법이었다. 따라서 이 조약을 ‘을사늑약(勒約)’, 즉 ‘억지조약’으로도 불린다.

을사늑약에 앞서 1905년 4월 1일에는 한일통신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모든 통신사업과 기존시설 전부를 강탈해 갔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을사조약의 실황을 외국에 전신으로 알리고 ‘국제정의’에

호소할 길마저 막혀있었다. 러일전쟁에서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국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은 일본의 전비 80%까지를 차관해주며 미국무기로 일본군을 무장시켜 동맹국이상으로 일본을 지원했다. 그리고 포츠머스강화조약을 알선하면서 조약체결 약 1개월여 전인 1905년 7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 W.H.테프트 미 육군장관 사이에 ‘가쓰라-테프트밀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일본 보호국화를 사전 약속한 바 있다.

이 밀약은 당시 우리의 국가운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기에 참고로 올린다.

- 1)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대하여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전혀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
- 2) 극동의 평화유지는 일본·미국·영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동시에 유일한 수단이다.
- 3)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

바로 이 밀약에 뒤이어 영·일 제2차 동맹이 체결된다. 이렇게 3국은 일본의 한국침략과 미국의 필리핀 점령 추진 문제의 야합이 성립된 것이다.

을사늑약이후 미국은 주한공사관을 폐쇄하고 영사관으로 대처하는데 앞장섰다.

1951년 이후 한·일 양국은 이른바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의 회담이 있었는데 미국은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성공되

도록 재촉해왔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뜻에 부응하여 1965년에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진 것이다. 한·일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는 ‘을사늑약’ 등 불법적으로 맺은 조약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술합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약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본조약’이 맺어졌으니 모든 것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한 두나라의 관계는 결코 ‘정상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식자의 소신인 것이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세계에 호소하고자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선생 등을 특사로 보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그 달 말 ‘정미 7조약’ 혹은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리는 ‘한일신협약’을 이완용 내각에 제출하여 이제 완전히 힘을 잃은 순종의 재가를 받아 한국의 식민지화를 한층 발전시켰다.

을사늑약 직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항거가 정미신협약에 대한 항거로 더욱 기세를 올려 전국 각지에서 전개됐다. 적어도 50만 명이 의병항쟁에 참여했으며 15만 이상이 전투와 학살로 희생됐다. 1910년 초에 이르러 의병의 항쟁은 거의 진압되어 결국 그 해 8월에는 일본의 데라부치 통감과 역적 이완용 총리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이 조인된 것이다.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역사 의식과 민족의식을 새로 다짐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올바른 ‘역사의 청산’을 통하여만 새로운 우방이 될 수 있다는 결의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경술국치 100주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삼웅
전독립기념관장

형식요건도 갖추지 못한 ‘조약’

4천년 역사에서 나라를 송두리째 외적에 빼앗긴 것은 경술국치 외에는 한 번도 없었다. 임진·정유왜란 7년에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병자호란 때에는 임금이 적장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나라는 유지할 수 있었다.

1910년 8월의 국치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비록 국권은 외적에 빼앗겼지만 역사와 민족은 그대로 살아있대서 애국지사들은 망국이란 표현대신 국치라 불렀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하룻동안 금식을 하면서 절치부심 독립정신을 가다듬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정미7조약, 차관정치, 군대해산, 기유각서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제국을 무력화 시킨 다음,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매국노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이른바 ‘병탄조약’이 날조되고, 8월 29일 이를 공포하였다.

이 조약은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에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자작 데라우

치 마사다케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으로 임명함”이라 하여, 마치 순종황제가 망국조약의 체결권을 이완용에게 위임한 것처럼 하였다. 하지만 순종이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위임장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또한 내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내각회의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 강제병탄 뒤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순종실록>에서 조차 기록이 없다. 자기 나라를 외국과 ‘합병’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 내각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대한제국에는 조약안의 처리 절차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조약문안의 필체·용지 등을 살펴봐도 이 문건이 날조된 것을 쉽게 알게 된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는 병탄조약의 양측 문서를 확인해 보면 한글과 일본어로 된 토씨를 제외한 모든 글자가 동일 필체의 한자(漢字)로 씌여 있다. 조인과정에서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글씨체 뿐만 아니라 종이질, 제본형태, 봉인방식 등이 완전히 똑같다. 이는 병탄조약 문안이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정적 증거다. 병탄조약 이전에 체결된 한일의정서, 을사늑약, 한일협약 등에서는 양측 문서의 글씨체와 종이질이 전혀 다르다.

병탄조약이 ‘체결’ 되고 2개월여가 지난 1910년 11월 7일 데라우치가 일본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에게 보고한 문건에도 저간의 사정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데라우치는 현장에서 병탄조약을 ‘체결’ 한 장본인이다. 이 문건은 일왕에게도 보고되었다.

“본관은 성지(聖旨)를 받들어 지난 7월 23일 한국에 착임한 이래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시기를 노려 병합의 실행에 착수코자 한편으로는 준비를 서두름과 동시에 남몰래 한국 상하의 상황을 살펴보건대, 어느 한쪽이나 대세의 진운에 비추어 난국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근본적인 개혁을 피할 수 없다는 사리를 깨달은 것 같으나 당국자는 오직 황실의 대우와 재상 정부 직원의 처분에 관하여 아직도 의념(疑念)을 품어 시국 해결의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본관은 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천황폐하의 관인하고 그 정부의 광명한 황실 및 재상은 물론 한민(韓國人) 전반의



▲ 1907년 내각총리대신이 된 이완용(가운데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대신들을 이끌고 황태자로 책봉된 영친왕(중앙)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처세 상태를 한층 안전
하고도 행복한 지위에
둘 것이며, 오늘보다 더
한 고경(苦境)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는 이유 및 한국 내각원
으로서 그만 둔다할지라
도 제국정부(일본정부)의
결의를 실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그의

퇴피(退避) 행위는 도리어 당국자 및 국가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
리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데라우치가 한국에 착임하여 병탄의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과정을 밝힌 문건이다. 이에 따
르면 대한제국의 ‘당국자’들이 오직 황실의 대우와 자신들의 처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
이다. 여기서 ‘당국자’란 이완용 내각의 수상과 각원을 말한다. 이들은 나라의 안위는 안중
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을 고위직에 올려준 임금과 황실의 안녕과 자신들의 처우에만 관심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한국의 황실과 재상들을 보장할 것이며, 설혹 내각원들이 사직하더라도
합병에는 지장이 없을 터이니 알아서 하라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데라우치가 국권탈취 원흉

데라우치는 일본에서 만들어 온 조약내용 5개항을 이완용에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했다. “조약체결의 순서로 귀 대신은 먼저 각의를 거친 후에 한황폐하(순종)
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말씀드려 조약체결을 위해 전권위원의 임명을 주청할 것이며, 귀 대
신과 본관은 그 직책상 조약체결의 대임을 맡음은 물론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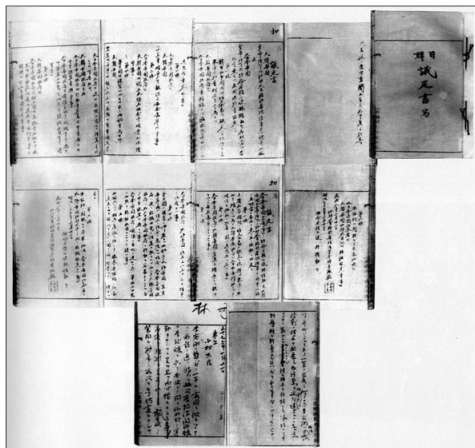
짐은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한 양국의 친선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 합해서 일가가 되는 것이 서로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소리로 생각되어 이에 한국의 통치를 모두 짐이 가장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안녕과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으로 하여금 대일본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회동하여 상의 협정케 한다.

”

데라우치는 친일각료 농상공부대신 조중웅과 이완용 내각에서 내부대신 등을 맡으며 한일합방 상주문,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친일원흉 송병준을 불러 이완용과 매국조약 체결을 경쟁시키면서 병탄을 진행했다.

일제의 한국병탄 전략은 치밀했다. 순종 황제 명의를 ‘합병문안’ 까지 일본에서 만들어 왔다. “짐은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한 양국의 친선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 합해서 일가가 되는 것이 서로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소리로 생각되어 이에 한국의 통치를 모두 짐이 가장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안녕과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으로 하여금 대일본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회동하여 상의 협정케 한다.”

일제는 8월 22일 일본헌병대가 철통같이 포위한 창덕궁에서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이완용이 합방조약문을 내놓고 각의에서 통과되었다면서 융희황제의 재가를 요청했다. 국사의 주요 문서는 어새와 황제의 이름자 ‘척(拓)’자의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윤황후가 국치문건에 어새를 찍지 못하게 하려고 어새를 치맛속에 감추었다. 이를 눈치 챈 윤황후의 삼촌 윤덕영이 이를 강제로 빼앗아 치욕의 문서에 찍



▲ 한일협정서

었다.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택이라고 확신하고…….” 병탄조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위협과 강압으로 맺은 병탄조약은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의 황제가 일왕에게 통치권의 양여를 자청하고 일왕이 이 요청을 수락한 것처럼 만들었다.

병탄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라고 만들었다. 병탄조약에는 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박제순, 탁지부대신 고영희,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궁내부대신 민병석, 시종권경 윤덕영, 중추원의장 김윤식 등 ‘병탄7적’이 앞장섰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일제는 8월 29일 ‘조약’을 공포함과 동시에 한국이라는 국호를 폐지하고 통감부를 대신하여 조선총독부를 개설하고 초대총독에 데라우치를 임명했다. 합방에 공을 세운 이완용 등 친일파 75명에게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주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관보> 제1호에 병탄조약을 게재하면서 내외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병탄조약’ 이라 써야

한국을 멸망시킨 데 앞장 선 데라우치는 8월 30일 남산 총독관저에서 파티를 열어 “고바야가와, 가토, 고니시가 세상에 있다면 오늘 밤의 달을 어떻게 보았을까?”라며 승자의 오만과 자만에 빠져 한껏 거드름을 피웠다. 고바야가와, 가토, 고니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

략한 왜장들이다.

일본에서는 합방사실이 알려진 8월 29일 도쿄 시내에 집집마다 일장기를 내걸고 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꽃으로 치장한 전차에 올라 환호했다. 낮에는 합방을 자축하는 깃발의 행렬이, 밤에는 초롱불 행렬이 이어졌다. 일본열도가 온통 축제와 광기에 들떠 있었다.

한국에서는 전판돈녕부사 김석진, 선비 황현, 의병장 이근주, 전공조참의 이만도, 전사헌 부지평 이증언, 의병장 김도현 등이 병탄을 반대하면서 자결하고, 망명 중이던 안명근이 입국하여 군자금 모집 중에 피체되었다. 매국노들은 일제에 나라를 팔았지만 민중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제와 싸우면서 국권회복 투쟁을 벌였다.

박정희정권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때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란 표현을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현재완료형으로 해석하여 “이제 무효가 됐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침략과 병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국치에 관한 용어문제가 심각하다. 학계나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합방’이나 ‘합병’은 두 체제가 평화적으로 합의하여 새국가를 만들었다는 뜻임으로 부적절한 용어다. 일본이 쓰고 있는 ‘병합’ 역시 두 주체의 평화로운 합의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마땅히 ‘강제병합’ 또는 무력에 의한 침탈의 ‘병탄(併呑)’이 맞다. ‘병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이나 국가를 강제로 빼앗아 합치는 것”을 뜻한다. ‘한일합방’, ‘한일병합’ 따위는 일제가 강도질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 쓴 용어를 우리가 분별없이 받아쓰고 있다. ‘병탄’ 또는 ‘병탄조약’으로 써야 할 것이다.

일제의 한국병탄 100주년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사죄하지 않는 일왕을 초청한다고 한다. 일왕의 공식적 사죄와 ‘이미 무효’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한 뒤에 초청해도 늦지 않다. 무엇보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정권의 이데올로기로 받들고 있는 이 정부에서 일왕 초청은 국치를 거부하며 싸워온 애국선열들을 욕보이는 처사가 될 것이다. ㉠

충효를 함께한 일광 정시해 의사(鄭時海 義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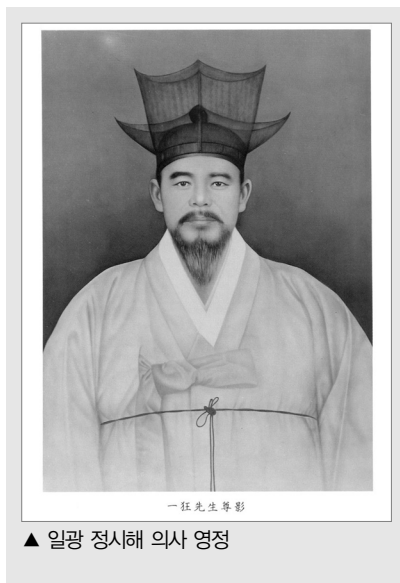
정만기
본회 이사, 고창코리아 발행인

최초의 민간성금으로 건립한 일광기념관을 중심으로
항일역사교실, 바른역사 답사단,
고창어울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公)은 1874년(甲戌)3월26일 전북 고창군 성송면 삼태(全北高敞郡星松面三台)에서 부친 정종택(鄭鍾澤)과 모친 거창신씨(居昌愼氏)의 셋째아드님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부유한 선비 가정에서 자라 일찍 학문에 전념하여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벼슬 길에는 뜻이 없었다. 그러나 학행이 고매하여 향중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때의 무장고를 원님은 크고 작은 일을 자문하여 관리들의 출입이 빈번하기로 남쪽동헌이라 했다 한다.

공은 근엄한 부친시하에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조석문안과 출입절차를 선현들의 가르침대로 어김없이 지켜서 몸에 배었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임을 일찍이 깨달았다.

어느 봄철에 병아리가 구정물통에 빠져 죽은 것을 모친이 측은하게 여기시며, 내가 잘못해서 어린 생명을 놓쳤다고 무척 속상해 하시는 것을 본 며칠 후에, 서당 가는 도중 산길에서 죽은 병아리 또래의 꿩 새끼 한 떼를 만났다. 어린 마음에 저놈을 한 마리 잡아다가 죽은 병아리 대신 키우면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쫓고 다니다가 한나절이 지났다. 그 동안에 서당에서는 집으로 사람을 보냈으니 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옛날에는 늑대가 많아서 어린이나 부녀자는 변을 당하기도 했으니 놀랄만한 상황이었다.



▲ 일광 정시해 의사 영정

1892년(壬辰) 19세가 되던 봄에 함양오씨(咸陽吳氏)와 결혼하여 다음해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생남을 하였으니 그 이름이 휴석(休碩)이다.

1894년(甲午) 공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 동학봉기로 세상의 민심이 흉흉하고, 치안 부재의 상황이 되자 부친을 모시고 김제(金堤)해안으로 피난하여 아버님의 시중을 받들고 틈틈이 바다에 나가 물고기와 조개를 잡아 모았다가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고향의 어머니께 문안인사를 다녔다.

3년 동안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 고향의 모친은 그날 석양이면 동구 밖에 나와 기다렸다. 백 여리의 먼 길을 이웃처럼 내왕하는 효성에 감탄하여 마을 사람들은 사천마(千里馬)라 했다.(行狀抄)

1896년(丙申)에 고향에 돌아와서 안정을 되찾았으나 부친이 급환으로 운명에 이르자 손가락을 깨서 구급하였고, 다음해에 돌아가시자 고산중턱의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시묘(侍墓)했다. 이때 움막부엌에 밤이면 언제나 와서 자고 가는 호랑이가 있었다. 깊은 산중에 서로 의지가 되면서 호랑이는 공을 주인처럼 따랐다.

초하루 보름이면 집에 가서 치전(致奠)을 드리는데 호랑이가 따라다니니까 어둠이 깔린 후에 집에 오곤 했는데도 호랑이가 따라다니는 소문이 퍼졌다. 그날도 집안 아이들이 호랑이 한번 보자고 졸라대서 무심코 그렇게 보고 싶으면 대문 밖 양애밭에 가보라고 하니 등



▲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의 정 의사 묘

불을 켜들고 아이들이 양애대를 헤치고 들어가 보자마자 기겁하여 소리를 지르며 등 불도 버리고 도망쳐 나왔다. 이에 성난 호랑이는 갓은 행패를 부리고 그 후에는 집에 따라 오지 않았다고 한다. (蘆墓日記抄)

모친상에도 아버님 때와 같이 3년을 시묘하였으니 전후 6년의 시묘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으나 양친이 안 계시는 집안은 썰렁하고 구슬프기만 했다. 공은 처자를 데리고 다시 6년 동안 정불인 고산으로 들어가 삼간초당을 마련하여 고산서실(高山書室)이라 이름하고 집 뒤에 동명단(東明壇)을 쌓아 국태민안과 망부모의 명복을 빌었다.

책 읽고 계곡의 물소리와 솔바람 소리를 들으며 대자연의 품안에서 심신수양에 정진하였다. 산중생활에 익숙한 공은 모든 산짐승과 벗하고 수석초목(水石草木)도 함께 했다.

1905년(乙巳)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공은 책을 덮고 어린 처자만 산중에 남겨둔 채 서실에서 나와 장성(長城)의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을 거쳐 은사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을 찾아갔다.

토적소(討賊疏)를 올리다 지친 면암은 제자의 우국충정을 치하하고 영남(嶺南)유림에 격문(檄文)전달을 명하였다. 공은 격문을 갖고 경상도로 직행하여 엄동설한에 풍설을 가리지 않고 경상도 일대를 누볐다.

석양에 찾은 집은 쉬어서 내일 일찍 출발하라고 만류해도 뿌리치면 걱정하는 주인에게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 한 마을에서 오래도록 같이 살자하고 헤어지기도 했다.

처음 만난 사이라 직함을 물어 백두(白頭)라고 하면 감탄하였다. 벼슬도 없는 젊은 선비가 불고가사하고 구국전선에서 동분서주하는 충성에 감동하여 참다운 선비라고 정진사(鄭眞士)라 불렀다 한다.

집 떠난 지 오래되어 의복이 남루하고 피로가 쌓여 행색이 흡사 미친 사람 같은 자신을 받



▲ 고창어울마당 기념관참관

▲ 순국추모제

견하고 모양새도 꼭 미친 사람 같거니와 나라 잃은 백성이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수가 없어 나는 미칠 수밖에 없음으로 호(號)를 일광(一狂)이라 한다고 자호기(自號記)에 적었다.

1906년 2월, 3개월의 영남순방을 마치고 태인(泰仁)으로 돌아와 면암계 영남정세를 보고 하고 면암의 병오창의(丙午倡義)에 참여하여 소모장(召募將)으로 의진의 일익을 담당했다. 곡성(谷城)으로 진출하여 파견된 헌병대와 전투를 치르며 지리산에서 장기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순창(淳昌)으로 회군하던 중 내침한 적군 일대를 성 밖에서 싸워 격퇴했으나 전력에 큰 손실을 입었다. 1906년(丙午)윤4월20일 의병대가 위기에 빠지자 면암은 정시해 의사를 중군장(中軍將)에 내세우고 객사에 포진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중 어제 패주한 일군이 전주·남원의 진위대를 앞세우고 다시 공격해 왔다.

황혼의 격전에 적탄이 공의 흉부를 관통하여 선혈이 치솟을 때 “절대로 전열을 흐트리지 말라”고 주변에 당부하고 면암계는 “죽어서라도 선생님을 도와 결단코 왜적을 섬멸 하리다” 하고 숨을 거두니 공의 나이 33세였다.

별안간에 뇌성벽력과 폭풍우가 몰아쳐서 천지분간을 못하게 되자 충성은 멎고 적군도 철수하였다. 면암은 시신을 안고 통곡하니 진중은 숨 막히는 비통의 도가니에 잠겼다.(獨立運動史第一卷)



▲ 항일역사교실 수업 후 기념촬영 (고창중 2학년 5반)

면암은 조선의사정공지구(朝鮮義士鄭公之柩)라고 명정을 쓰고 만사(輓詞)에 “해 저문 순창사관에 죽기로 맹세한자 14명 중에 그대가 먼저 죽으니 우리에게 빛이 되었도다”라고 했다. 일광 정시해 의사의 운구 행렬이 순창에서 고창까지 오는 동안 각지에서 백성들이 그의 순국을 기리며 노제를 지내주었다. 장성에서 달려온 매천 황현(梅泉 黃玑)은 조문 만장에 “전략(前略).....적성강(赤城江) 물이사 흘러흘러 그침이 없으리니 봄풀도 해마다 돌아 나라위한 죽음을 제사하리라”했다.

또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은 제문에 “충은 민자의 대의요 효는 인자의 도리임으로 충효는 일본이며 표리의 관계이다. 정군(鄭君)은 사친에 생물이 여일한 출천의 효자였기에 국난에 처하여 백두서생으로 의연히 생명을 바치는 의용이 있어 효로 시작하여 충으로 마친 짧은 생애는 마땅히 천추에 빛나리라”하였다.

그가 죽고 면암은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면암은 “제자인 일광(一狂) 대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으면 이런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고 단식 끝에 절명하였다.

1945년(乙酉) 조국이 광복되어 순국선열에 등록되고 1990년(丙午)건국훈장 애국장이 추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1.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씩 참여하는 '항일역사교실'
 2. 전국의 고창인 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에 3박4일로 운영하는 역사바로알기 캠프인 '고창어울마당'
 3. 독립기념관과 전국의 독립유적지를 순방하는 '바른역사 답사단'
- 그리고 후손인 정만기 발행인이 만드는 지역신문 '고창코리아' 등은 작지만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되었다. 유해(遺骸)는 전북 고창군 성송면 양사동 안산에서 1994년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제307호 유탁에 이안(移安)되었다.

1994년 사단법인 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회장 라홍찬)가 발족되어 정 의사의 충과 효를 기리는 추모관 건립에 2천여명의 성금과 후손 정상열의 전 재산기증으로 고창 초등학교 앞에 '일광기념관'이 세워졌고, 2006년 순국 일백주년을 맞아 기념관 2층에 부설 '항일역사도서관'을 만들었다. (민간성금으로 세워진 최초의 국가지정 현충시설 기념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1.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씩 참여하는 '항일역사교실', 2. 전국의 고창인 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에 3박4일로 운영하는 역사바로알기 캠프인 '고창어울마당', 3. 독립기념관과 전국의 독립유적지를 순방하는 '바른역사 답사단', 그리고 후손인 정만기 발행인이 만드는 지역신문 '고창코리아' 등은 작지만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고창코리아 신문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박영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

답사를 떠나기 전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책에 파묻혀 지내고 있을 때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라고 밝히며 온 전화 한 통. 그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나에게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임시정부가 다녔던 길을 찾아 떠나는 답사, 가고 싶기는 한데 정말 가도 되는 걸까? 지금 나에게 사치는 아닐까?” 첫 번째 고민은 의외로 쉽게 답이 나왔다. 무조건 가야 한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심지어 답사를 다녀오면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책으로만 보았던 내용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첫 번째 고민을 쉽게 해결하고 난 뒤, 친한 친구에게 답사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친

구는 나에게 잘 다녀오라는 말과 동시에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런데 답사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어? 가보면, 그냥 건물 하나 달랑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이 태반이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건물이구나. 기념탑이구나 하고 지나쳐버리지 특별한 감정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고. 이런 내가 이상한건가?”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에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이 있었다. 이제까지 이런 저런 답사를 많이 다녀왔지만 그 답사들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것은 무엇인가. 각종 기념비들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던가. 보고 나서 그 감정과 생각들을 얼마만큼 내 생활과 연결시켰던가. 결국은 나도 한 번 보고 지나쳐버렸던 것은 아닐까. 단순히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기대에 잔뜩 들떠있기만 했던 것은 아

날까. 2009년 7월 11일, 나의 독립정신 답사는 이와 같은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난 우리의 역사

이번 답사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상해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포동공항에서 임시정부 청사까지 가는 길에서조차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던 상해가 낯설게 느껴지지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임시정부청사에 도착했을 때였다. 보경리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복원된 건물로 그 전까지는 중국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임시정부 청사 바로 옆으로 중국인들이 생활하는 것이 보였다. 한 나라의 망명 정부의 청사가 있던 곳 바로 옆에 빨래를 널어놓은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관리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걸까”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과 함께 이 곳이 타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느꼈다.

하늘 가득 빨래들이 보이는 골목을 지나 임시정부 청사 건물로 들어가 가장 먼저 임시정부의 발자취에 대한 영상을 보았다. 상해 임시정부는 다른 지역의 유적지에 비해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편이라 그런지 청사에는 우리 답사단을 제외하고도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들어가 영상을 보기에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했다.

결국 팀을 나누어 약 25명 정도씩 들어가 한 팀은 영상을 보고 다른 한 팀은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그래도 좁았다. 임시정부가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1919년 그 시절에는 지금 우리 25명, 5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했을 그들을 생각하니 지금 날씨가 덥고 공간이 좁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보고 난 뒤, 청사에 있던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았다. 1층에는 회의실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좁은 공간을 활용해 계단 밑에 둔 화장실, 부엌이 있었고 2층에는 김구 선생 집무실과 정부 집무실이 있었으며 3층에는 요인들 숙소가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임시정부 초기 태극기나 요인들과 가족들의 사진, 독립신문 등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 본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초안이었다. 작년 학교에서 일제시기와 해방정국기의 정치사상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김구선생에 대한 발표를 맡았었던 터라 임시헌장이나 건국강령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글자 한 자 한 자를 눈여겨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임시헌장 초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답사단원들의 이야기가 들렸다. 단원들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 앞에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김자동 회장과 「장강일기」의 저자인 정정화 선생님이셨다. 지금 나와 함께 답사를 다니는 분이 사진 속의 인물이라니. 뭔가 역사의 현장에 있는 느낌이었



▲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나와 우리 조원들

다. 그런데 현지 안내원은 그 사진 속 주인공들이 중국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당황한 우리는 안내원에게 사진 속 인물들은 중국인들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 그제야 안내원은 사진 속 인물들도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사람들에게 안내 및 설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일까.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안고 청사를 나오는 길, 이제 씁쓸하다 못해 약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청사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는 어느 유적지든 그렇듯 기념품 판매점이 있었다. 무엇이 있나 둘러보았는데 모두 중국을 상징하는 것들뿐이었다. 부채, 찻잔,

도자기 등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이니 만큼 그와 관련된 기념품이 있기를 기대한 것이 나의 큰 욕심일까? 기념품 판매의 수익금이 청사의 관리에 쓰이니까 더 잘 팔릴만한 물건을 놓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역사를 만나는 것,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의 첫 경험은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

답사 둘째 날, 우리는 상해에서 남경으로 이동했다. 상해에서 남경까지는 약 3시간. 그 시간동안 버스 안에서 1조의 발표와 신명식 부단장님의 강의를 있었다. 현재 상해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들 중 상당

상해에 살면서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 민족,
제대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남경대학살이 자행되었던 남경.
무언가 개연성 없는 이야기들이 나열된 것 같아 보였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일이 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다.

수가 해방 이후 북한국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한국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는 이야기,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주국에서 세운 신경 군관학교의 출신이 일본 육사→만주국 소위 혹은 독립 운동가들을 잡는 간도특설대→해방 이후 국군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 남경대학살이 이루어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상해에 살면서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 민족, 제대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남경대학살이 자행되었던 남경. 무언가 개연성 없는 이야기들이 나열된 것 같아 보였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일이 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버스는 어느새 남경에서의 첫 번째 유적지인 남경대학살 기념관 앞에 도착했다.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1937년 12월 13일 남경을 점령한 일본군이 약 2달 동안 벌인 학살에 대해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이 있었다면 중국에서는 남경대학살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강간당하고 죽었다. 남경대학살에 대해서는 예전에 아이리스의 장이 쓴 「난징대학살」을 읽고 관련 다큐를 보았기에 그 끔찍함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이 되었을 줄 알았지만, 막상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 유골 등을 보니 그 끔찍함에 몸서리쳤다.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을까. 광기, 그 단어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 않았다. 한 순간에 이성을 버린 광기어린 인간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다. 남경대학살 기념관에는 대학살 당시의 사진, 생존자들의 영상 외에도 인상 깊은 기념물들이 많았다. 특히 남경대학살 기념관을 나오는 길에는 기념관 자리에서 발굴된 유골, 일본인들이 반성한다는 의미로 보내준 것, 분향소가 있었는데 슬픈 역사를

딘고 평화의 길로 나가자는 의미 같아 인상 깊었다. 남경대학살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관람객들이 남경 대학살에 대해 깊이 느끼고 고민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떠올랐다. 독립 운동가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알려주기 위해 ‘친절하게도’ 버튼을 누르면 바늘이 독립 운동가의 손을 찌르는 장면을 볼 수 있게 해 놓은 우리의 기념관들. 꼭 그런 방법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외국으로 간 답사의 묘미, 우리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다니다보니 기차를 타야 하는 일이 종종 생겼다. 워낙 많은 인원이 많은 짐을 가지고 기차를 타야 하다 보니 일찌감치 역에 도착해 대기하곤 했다. 게다가 중국 기차는 특하면 지연되어 우리가 역에서 머무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티셔츠에 조끼를 입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말로 떠돌고 있으니 중국인들 눈에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하고 궁금했던 모양이다. 몇몇 중국인들은 우리를 한참 보다가 말을 걸었다. 처음 시작은 늘 똑같았다. “한국인인가요?” “네, 한국인이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중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어를 꽤(?) 하는 줄 착각하고 편하게 중국말로 질문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중국어는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 문제. 그 뒤부터는 계속 ‘팅부동(모르겠어요)’로 일관했

다. 서로 대화는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한참 답답해하다 생각난 것이 바로 필담. 같은 한자문화권이니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았다. 그렇게 중국인들과의 진땀나는 필담이 시작됐다. 중국인들은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 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끝에 우리는 ‘獨立精神踏査’라고 써서 대답했다. 독립정신이라는 말에 중국인들은 알아듣는 듯, 못 알아듣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난감한 상황. 중국인들도 우리의 표정을 읽었는지 장사의 어디로 가냐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다. 장소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자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고, 답사수첩에 한자로 쓰인 글자를 찾았다. 겨우 찾은 글자는 상아의원. 상아의원이라는 곳에 학교도 함께 있었는지 우리에게 교환학생으로 의학공부 하러 가냐는 중국인의 질문. 독립정신답사라는 말로 우리의 정체가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다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방학이라 답사를 온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 중국인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들었을까는 잘 모르겠다.

분노, 슬픔, 기쁨, 아쉬움, 여러 가지 감정의 조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상해로 도착하고 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답사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우리가 찾은 마지막 답사장소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8년간의 이동 끝에 정착한 중경

원래 묘지가 있었던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1986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이 곳에 묻혔던 독립 운동가들의 유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중 수교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유골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실에 안타깝고 화가 났다.

이었다. 작년에 수업을 들을 때 중경 임시정부 시절
에 관한 자료를 가장 많이 봤던 터라 이번 답사 일
정 중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그만큼 중경에서
찾게 될 곳들이 기대가 됐다.

중경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화상산 한인묘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요인이었던 송병조, 차리석, 이
달, 손일민, 궤낙원, 김인 등의 묘지가 있었던 곳이
다. 묘지라는 말에 이 곳이 독립 운동가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니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처음 듣는 곳
이라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궁금했다. 타국에 묻혔
기에 화려하게 꾸미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비석
하나 정도는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눈으
로 본 현실을 그렇지 못했다. 원래 묘지가 있었던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1986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이 곳에 묻혔던 독립
운동가들의 유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
었기 때문이다. 한중 수교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나
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유골조차 제대
로 지키지 못한 사실에 안타깝고 화가 났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김정록 선생님의 어머니 묘
비를 찾을 때 가장 커졌다. 답사단원들 대부분이

신명식 부단장님의 강의를 듣거나 사진을 찍고 있
는 와중에 몇몇 단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뭐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나. 그 궁금증 덕분에 김정록 선생님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사연을 듣고 나서 가만
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아는 것이라고는 ‘강태정’ 이
라는 성함뿐이었고 일일이 묘비를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지만 꼭 어머니의 묘비를 찾아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묘비를 찾기에 화상산 한인묘지는
너무 컸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았다.
김정록 선생님 한 분 뿐이겠는가. 수많은 독립 운
동가들의 유골은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
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우리가 모르
고 있는 사이, 그 위로 아스팔트가 깔리기도 했고
공원이 생기기도 했다. 이것을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사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 너무나 슬픈,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
야 할 숙제는 아닐까.

화상산 한인묘지를 떠나 버스 안에서 손가화원과
광복군 총사령부 옛터인 미원식당을 본 뒤, 중경 임
시정부 청사인 연화지에 도착했다. 1940년 중경으

로 자리를 옮긴 뒤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으로, 1991년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 청사 존립의 위기가 있었지만 복원작업을 시작해 1995년 공개된 곳이다. 상해임시정부



▲ 항주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청사에 비해 약 12배 정도 크며, 여러 곳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중 가장 복원이 잘 된 곳이다. 책에서 본 사진 모습이랑 똑같았다. 임정요인들은 이 곳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을 맞이해 기쁘기도 하고, OSS 작전에 참여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일찍 맞게 된 해방으로 인해 아쉽기도 했겠지. 기쁘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100% 느낄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전부는 느끼지 못해도 일부만이라도 느껴보고 싶었다. 그래서 임정요인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던 장소에서 답사단 단체사진을 찍고 독립군가를 부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렁차게 불렀다. 다른 장소에서는 그렇게 외워지지 않았던 독립군가 1~4절이 그 순간만큼은 어찌나 생생하게 기억나던지. 답사를 다녀온 지금도 ‘나가~나가~싸우러 나가’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고민의 결과 =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8박 9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답사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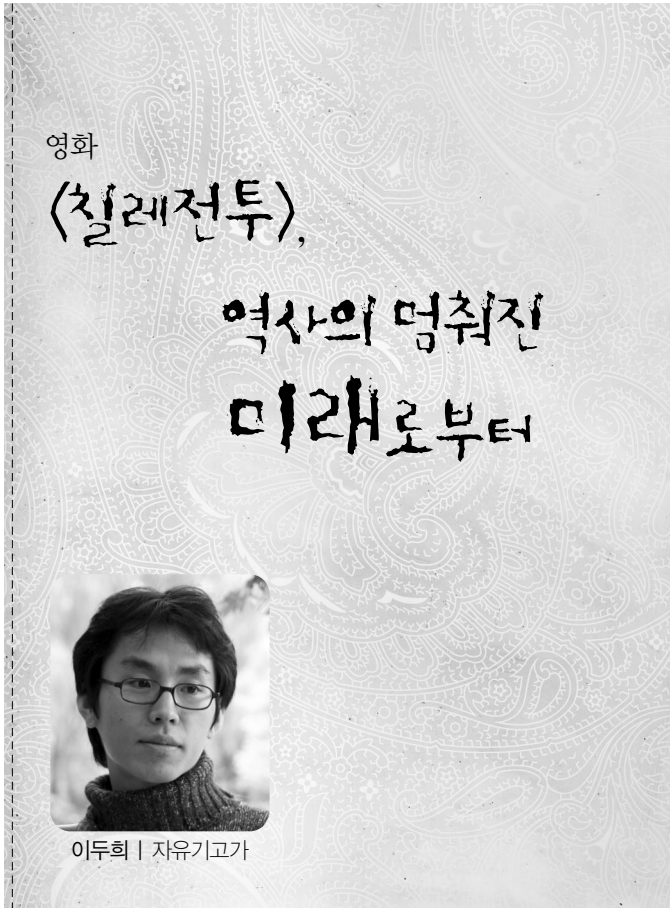
었는가. 답사를 떠나기 전 생겼던 두 번째 고민의 답을 찾았을까. 다시 한 번 답사 동안 틈틈이 수첩에 적었던 강의 내용, 그 날 느꼈던 감정들을 쓴 일기, 답

사 때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답사를 다녀온 지 벌써 2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들이 생생하다.

그랬다. 상해, 남경, 가흥, 항주, 장사, 계림, 유주, 기강, 중경이라는 곳들을 다니면서 두 번째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나라를 꿈꿨으며 그 나라와 지금의 현실이 같은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잘 설명하기 위해 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덩으로 함께 생겼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이번 답사를 통해 중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대한민국 인이라는 나를 만났다. ☺



1970년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민중연합의 후보로서 칠레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긴장한 국가는 역시 미국이었다.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정부가 들어서고 62년 미사일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 남미에 또 하나의 사회주의 정부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결국 1973년 9월 칠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미국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칠레 내부의 우익세력과 함께 아옌데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다. 파트리시오 구스만 감독의 영화 <칠레전투> 3부작은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칠레전투> 3부작은 단순한 연대기적 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았다. 먼저 1975년과 1976년 완



▲ 미국은 칠레 내부의 우익세력과 함께 아옌데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다



▲ 전복세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

성된 1부와 2부의 소재물은 각각 “부르주아의 붕괴”와 “쿠데타”이다. 사실 이 영화의 서사는 민중정부로서 아옌데 정부에 대한 부르주아 및 친미 우익세력의 반동, 즉 반혁명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어떻게 민중의 정부를 쓰러트리려고 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영화는 1,2부를 통해서 1973년 칠레의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9월 피노체트의 쿠데타까지의 사건들을 그려낸다. 민중연합에 맞서는 국민당과 기독교민주당이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의회의 과반석을 확보하고 정부를 불신임하였으며,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일련의 기득권 노동자들이 어떻게 반정부 파업을 했는가를,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우익 학생들과 파시스트 단체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칠레의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미국의 압력으로 국제사회는 칠레에 대한 개발차관을 삭감했고, 이제 칠레에게는 국부의 원천인 구리 수출마저도 위태로워지고 만다. 결국 아옌데 정부는 기독교민주당과의 정치적 타협과 군부와의 연립정권 사이에서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전복세력은 그 최후의 수단으로써 쿠데타를 일으키고만 것이다. 적어도 이 영화는 사실의 객관적 기록 따위를 빙자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반혁명세력과의 전선에서 자신의 당파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1,2부가 칠레의 전투에 대한 수세와 패배의 과정으로서 결과론적으로 진행되어갔다면, 2부보다 3년 늦게 1979년 완성된 영화의 마지막 3부 “민중의 힘”은 이러한 우익세력의 공세에 맞서서 어떻게 민중이 싸워나갔는가를 재조명한다. 아직 쿠데타에 의해서 민중의 정부가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걸었



▲ 우익세력의 공세에 맞서서 어떻게 민중이 싸워나갔는가를 재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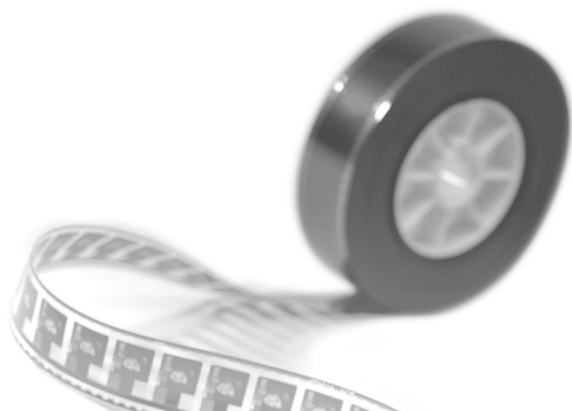
던 희망과 승리의 다짐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멈춘 공장을 노동자들이 점거하여 생산을 계속해나가고, 매점매석과 운수조합의 파업으로 생필품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시민들은 직접 자신들이 유통 분배를 조직하기 시작한다.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 속에서도 자신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잃지 않았던 민중들은 결코 사회적 생산과 공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에게는 아직 열려있는 가능성으로서 미래가 있었다. 비록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후 칠레에서 있었던 17년간의 군부독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 속의 민중들은 계속하여 자신들의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영화 <칠레전투>를 통해서 결과로서의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있을 수 있었던 그들의 멈춰진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서술의 입장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무수한 가정과 질문들을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우익세력과 군부대에 맞서서 노동자는 스스로 무장해야하는가 그리고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사유재산인 공장을 점거할 수 있는가. 혹은 민주주의 의회의 결정은 모든 상황에서 유효한가 그리고 민중의 정권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 타협도 수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어떠한 답들을 가질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문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반세기전 이러한 모든 가능성의 한 가지 답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역사는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마지막 말과 함께 아옌데 대통령은 1973년 9월 11일 결국 사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1부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군부의 첫 쿠데타 기도를 촬영하던 한 카메라맨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카메라맨 자신의 마지막 촬영 장면과 함께 쓰러지는 카메라의 모습을 영화는 담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는 빠트릴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다. 우선 역사적 현장으로서 2부의 마지막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쿠데타군의 폭격을 받는 대통령궁의 모습과 함께 아옌데 대통령의 마지막 라디오 연설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역사는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마지막 말과 함께 아옌데 대통령은 1973년 9월 11일 결국 사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1부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군부의 첫 쿠데타 기도를 촬영하던 한 카메라맨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카메라맨 자신의 마지막 촬영 장면과 함께 쓰러지는 카메라의 모습을 영화는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장면 그리고 이 두 가지 죽음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영화의 진실과 허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압도해버린다. 결국 그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걸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죽음으로써 증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적절한 감정적 호소인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야기의 설득력은 그 영화적 힘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영화 <칠레전투> 3부작은 1998년 3회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소개되었다. 이 때 영화제에서 같이 소개된 영화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1997) 역시 파트리시오 구스만 감독의 작품으로서, 감독 자신이 23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영화 <칠레전투>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국치’ 100년, 속죄와 화해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내년은 ‘국치(國恥)’ 100년이 되는 해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한일합방’ 한 세기가 되는 해다. 민간에서는 벌써부터 이 해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버르면서 시민들의 역사 의식을 높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올해 <친일인명사전>(3권)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24권)가 간행된 것은 ‘국치’ 100주년을 앞두고 친일문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국치’ 100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기성세대는 마땅히 고민해야 한다. 속죄(贖罪)와 화해를 화두로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하토야마 정권이, ‘한일합방’은 애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국 측 주장에 화답할 것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런 처방이 고려되지 못한다면, 한일협정의 재검토가 필요하겠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과제는 1965년 6월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불명확성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일본의 침략사실과 강점에 대한 시인, 사죄 명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반환’이라는 단어 하나 명시하지 못한 한일문화재협정 등의 문제를 대폭 수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적인 과제는 잠시 접어두고 내년에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겠다. 그것은 바로 하토야마 정부가 ‘한일합방조약’ 체결 100년을 맞아 그 조약은 물론이고 1905년의 ‘을사조약’ 등 강제 체결된 한말의 제 조약이 원천 무효였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일본의 '합병무효 선언' 해결책

하토야마 정권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은 종래 이웃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던 자민당 정권의 몰염치한 태도와는 다른 자세이며, 일본 국민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한국인의 기억에서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국치', 그 100년을 맞아 하토야마 총리가 포착하기에 따라서는 한국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하토야마 총리는 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날개를 달 수도 있다. 이 같은 제안은 와다 하루키 교수 등 일본 식자층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조약'이나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관련,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의 기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 측이 기본조약 교섭 과정에서 구 조약의 무효화 기점을 1904년 한일의정서까지 소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일제의 한국 강점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한국인의 용서와 화해를 기대할 수 없다.

필자는 최근 <제노사이드와 한국 근대>라는 책을 입수하여 일별했다. 동학농민혁명 때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학살만행이 전·후기 의병과 3·1운동, 경신참변 및 관동대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였는가를 서술했다. 제노사이드와 다를 바 없는 일제 강점기에 징병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까지 합하면 수백만명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은 유해조차 거두지 못했고, 2만1000여구는 죽어서도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야스쿠니에 억류되어 있다. 이것이 제사를 통해 해마다 조상들을 만나야 하는 한국인들이 쉽게 화해하지 못하는 한 이유라면 이해하겠는가.

한국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

한 때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일본 국왕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환영한다. 그러나 그의 방문은 한·일관계를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때 의미가 있다. 그건 한국 방문에 앞서 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과를 사죄하는 정도의 속죄행위라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속죄 없이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까. 그가 '통석(痛惜)의 염(念)'을 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사죄를 뜻하는 말이 아님은 식자들에 의해서 이미 지적된 바다. ㉠

※ 이 기사는 경향신문 2009년 12월 4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친일인명사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밑거름

-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연구실장

▲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관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으로 이슈가 된 민간단체이다. 또한 종교와 정치단체에 의해 언급되기도 한다. 1989년에 타계하신 임종국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1991년에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설립되었다. 이후 1995년에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하였고 학술심포지엄과 서적 출간 2009년 11월 8일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필자는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12월 30일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하여 이용창 연구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단체인가?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청산과 올바른 역사인식·교육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주로 하는 사업은 학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친일인명사전이 학술지적 사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근현대 역사의 바른 인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출판, 자료 부분에서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다.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기념사업회들에 대하여 ‘과와 공’을 비교하여 그 정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념사업회 가운데 친일행적이 있는 인물에 대한 사업회라든지, 흥미 위주의 일방적인 홍보 중심의 사업이 이뤄지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친일인명사전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분명한 선정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민족문제연구소 자체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관련전공학자들이 만들어 제시해준 기준이다.

2001년에 ‘친일인명사전 편찬 위원회’를 선정하였는데, 1948년 이후 제헌의회(1949)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당시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여러 당들과 단체들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 역사청산이라는 역사적 문제에 정치적 이슈가 개입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역사청산의 문제에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친일인명사전의 움직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권부터 있었던 움직임이었다. 참여정부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역사청산과정이 이루어졌고 경찰·군·사법에 대한 과거 청산이 진행되었다.

▶ ‘친일인명사전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에는 편찬위원과 집필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명단의 4천여 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로 선정한 것이며 오히려 실제 존재하였을 친일행위를 한 자들보다 적은 숫자일 것이다.

또한 ‘일제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한 핵심 부일협력자’들까지 포함한 숫자이며 이는 지위범(당연범)과 행위범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귀족 작위 계승자, 매국조약 참여자는 지위범이며,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중추원의 경우처럼 해당 단체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뤄지게 된다.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자면 지위범들과 별도로 군수, 경찰서장급(경시), 파출소 소장(경부), 고등형사(순사급)의 경우 독립운동 탄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행위범으로 구분한다. 또한 지위범이면서 행위범인 경우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친일인명사전은 10여 년간의 연구결과이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율을 거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친일행적만을 다룬 것이 아니며 그 밖의 활동까지도 최대한 확인되는 부분까지 하고 있다.



▲ 친일인명사전

▶ 과거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명단의 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가?

진상규명위원회의 명단에는 부일협력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명단이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명단은 부일협력이 포함된 것으로 분류기준이 다른 문제일 뿐이다.

▶ 경제인들의 친일 명단 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경제인의 경우 관료직을 겸직했는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일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한 경우를 친일 명단으로 분류하였다. 당시 일만 원은 현재의 수억~수십억의 가치가 있다. 또한 징용과 징병을 강요한 이들도 친일 명단으로 분류되었다. 당시의 일제 회보를 보면 1960년대 통치계획까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 친일명단으로 분류된 이들의 반발도 존재했을 것 같은데, 명예훼손 논란 같은 경우는 없었는지?

사전 발표시 사전 자체에 법적 소송을 걸어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의신청들이 있었다. 승소 판결이 난 경우가 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소송들이 있다.

▶ 친일인명사전 발간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민간단체로 1차적으로 데이터, 인력, 전문가 검수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 가지 사례로 조선총독부 관보, 기관지인 일본내각관보를 통해 중추원이 340여명인 것을 알아냈는데, 최종권한은 일왕에게 있었고 조선총독부가 대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 관심을 가지는 일반 대중들이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민족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와 시·도·군의 지부별 홍보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기금을 통해 상당한 모금액과 4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의 2010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애초에 친일인명사전은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총서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명편만 완성된 상황이다. 2013년까지 ‘단체편람 국내편(중앙, 지방)’, ‘단체편람 해외편’ 등 10여권을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이용창 연구팀장은 “역사는 현시대사이다. 과거사 청산은 역사의 연속성을 단절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의 비극을 보자는 것이다”며, 친일인명사전이 대학교의 도서관들에 배치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다.

문득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현영 소장이 강조했다는 “자기들의 선조라고 생각하고 연구에 임하라”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용창 연구팀장은 1920년대의 출생자들은 정말로 일제가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역시 존재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유명 경제인이나 독립운동가조차도 친일행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과거를 조사하고 청산하자는 것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어떤 것이 진실이었는지 일어난 사실에 대해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치·사회·경제에 걸쳐,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그리고 그 날까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친일인명사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젊은그대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2006년 부푼 꿈을 안고, 입학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렸고, 이젠 졸업이다. 졸업을 앞두고 무언가 허무한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현실에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힘들었다. 평소에 학교 수업을 들을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수업,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골라 들으며, 학점에 연연해하지 않고, 즐겁게 지냈다. “자유인” 내가 좋아하는 단어이다. 자유롭게 즐기며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었다. 사람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날이 좋은 날이면 캠퍼스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런 자유인의 모습으로 4년 동안 살았다. 학점을 잘 받으려면 “교수님의 생각에 맞게 답안 작성을 잘해야 한다, 또 이 과목이 학점 받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들어 왔다. 그럴 때 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난 교수님의 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교수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교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지. 수업을 듣되, 네가 정말 듣고 싶은 수업을 들어.” 그렇다고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한 학생은 아니었다. 다만 학점에 자유로웠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단짝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지도 모르겠다. 우주는 정말 큰데, 오늘 우리가 겪은



박상희
명지대학교 법학과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대에 찾아보기 드문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솔직히 난 그런 스승을 영화 속에서 처음 봤다.

“이거 저거 외워, 시험에 나와”가 아니라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에 대해 생각하게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대학에 오니 그런 스승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일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니,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서로 위로 했으니. 신기하리만큼 우리의 졸업 평점은 비슷하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 학점에 목을 매고, 스펙에 목을 맨다는 것이다. 학점관리, 스펙 쌓기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 아닐까. 나는 누구이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며,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우리는 고등학교시절 내내 대학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해 왔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아닌 강요된 생각을 하며 말이다. 어떤 틀에 짜 맞춰진 그런 교육을 받아 왔다. 대학에 오니 이번엔 정규직취업, 학점, 스펙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무엇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공부하기 보다 그저 학점 잘 받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전부이다. 성적순으로 대학을 들어가듯 학점과 스펙에 맞춰 회사에 들어간다. 물질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도 T.S. 엘리엇이 말했던 황무지가 계속 되고 있다. 정신보다는 물질이 최우선인 세상. 요즘 KBS 개그콘서트에 ‘나를 슬푸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인기다. 공감 많이 가 웃음을 자아낸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개그 소재 이긴 하지만, 현실을 꼭 짚어내고 있어 웃으면서도 씁쓸하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이다. 키팅이라는 선생님은 문학을 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대에 찾아보기 드문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솔직히 난 그런 스승을 영화 속에서 처음 봤다. “이거 저거 외워, 시험에 나와”가 아니라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에 대해 생각하게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대학에 오니 그런 스승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미국문학사수업 교수님이 좋다고 해서 타 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그분은 스승이셨다.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셨다. “슬



직히 미국문학사가 여러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겁니다.” 인생, 그리고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는 분이셨다. 이런 스승이 많아 지길 기대해본다.

졸업예정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고 많이들 물어본다. 대학생활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막연하게나마 찾아 다행이지만, ‘절실함’이 없었기에 아쉬운 생활이었다. 너 무나도 순탄했기에 물 흐르듯 지내온 것이 아쉽다. 정말 절실하게 공부하지 않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 지내 온 것이 아쉽다. “나는 나중에 기자가 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말만 하고 다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는 거의 안했다. 아직 대학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절실함’을 갖고 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를 찾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바란다.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좋아하고, 잘하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하며 준비해야 한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



생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언제 일을 하든 진정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절실함을 갖고 임하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싶다.

지난 5기 답사를 다녀오고 시간이 꽤 흘렀다. 그때 느낀 것은 ‘절실함’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유며, 권리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나아가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하면
나는 또 “우리 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 〈나의 소원〉 중에서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절실함을 갖고 임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니 어깨 펴고, 힘을 내길 바란다. ☺



2009년도 임정 '송년의 밤'



지난 12월 18일(금) 본회 송년회가 종로구 정동뷔페에서 열렸다. 본회 김동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 60여 명이 한 데 어울려 지난 한 해를 갈무리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행사는 본회 김자동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식사와 함께 조재형군(독립정신 5기)의 기타연주와 임시정

부에 관련된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참석했던 강은홍 양(독립정신 5기·이화여자대학교 2년)은 “답사에서 함께 했던 언니, 오빠들을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다”며 이 날 송년회의 느낌을 전했다. 식사가 끝난 후 (주)오토의 김선현 사장이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와인을 선물 하였다.

바로 잡습니다

독립정신 회보 48호 시로 읽는 독립정신 ‘獄中所感(옥중소감)’에서 오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1연 餘若米盡入獄中 (여약미진입옥중)는 餘苦未盡入獄中로 9연의 一日兩餐一國麥 (일일양찬일국맥)은 一日兩餐一掬麥로 바로 잡습니다.

독립정신 회보 47호의 다시 보는 좋은 기사 ‘현대사 연구 금기는 독립운동사 말살 의도’에서 잘못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48page의 사진 설명 중 ‘뒷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가 김승학과 함께 1963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참여했던 오광선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있으나, 유족들의 확인결과 오광선 선생이 아닌 백노 유우석 선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선민족대동단 기의(起義) 90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지난 11월 27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조선민족대동단 기의 90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작년 11월 28일 조선민족대동단 기의 90주년을 맞이하여 열렸던 이 행사는 1부 광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2부 학술세미나는 반병률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학술세미나에서 신복룡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삼일운동의 정치적 유산과 대동단의 승계]를 주제로,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조선민족대동단의 인적구성과 국가정체론]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이현주 연구관과 수원대학교의 박환 교수가 나섰다. 3부는 <동농 김가진전>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2010년부터는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에서 학술회의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독립정신 산악회 소식

독립정신 산악회는 동방문화진흥회가 주최한 '야산유적탐방'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로 다녀왔다. 주역뿐 아니라 유불선을 섭렵한 도인(道人)으로 이름 난 야산(也山) 이달(李達 · 1889~1958) 선생을 기렸던 이 행사는 부여일대와 은산 옥가실을 거쳐 안면도를 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독립정신 산악회는 2009년 마지막 행사로 11월 28일(토)에 북한산에 올랐다. 조금 늦은 단풍이 함께한 자리였다. 다음 산행은 2010년 3월에 있을 예정이다.



2010년 정인년
뒤지 않는 심장처럼
열심히 뛰시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뛰어 가겠습니다.

독립정신은 회원·독자 여러분과 함께 뛰어 가겠습니다.

독립운동·임시정부·일제만행·통일운동에 관한 글이나, 논문·시·수필을 보내주십시오.
회원·독자 여러분과 함께 뛰어가는 회보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 매수는 A4 2~4매 이내, 필자사진(명함판) 1장,
관련 사진(있을 경우)을 본 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E-mail:kpg1919@korea.com / 전화번호 : (02)3210-0411, 732-2871~2



북우 계봉우의 자전적 기록

〈꿈속의 꿈〉

김학민 | 본회 이사

북우(北愚) 계봉우(桂奉瑀)는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하의 역사학자이자 국문학자이고, 또 교육자이며 독립운동가이다. 그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하여 일제하에서 사회주의 진영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독립운동에 관여된 사람들을 찾아 정부가 포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995년 대한민국 정부는 계봉우의 민족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이후 1996~97년에 걸쳐 독립기념관에서 〈북우 계봉우 자료집〉 1,2권이 나왔고, 1999년에는 서울 학민사에서 그의 저작의 하나인 〈과학의 원수〉가 출간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가보훈처가 계봉우를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최근 들어 반병률,

권희영, 윤병석, 김필영 등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저작이나 논문에서 계봉우의 생애와 활동 등을 다룸으로써 국내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계봉우 연구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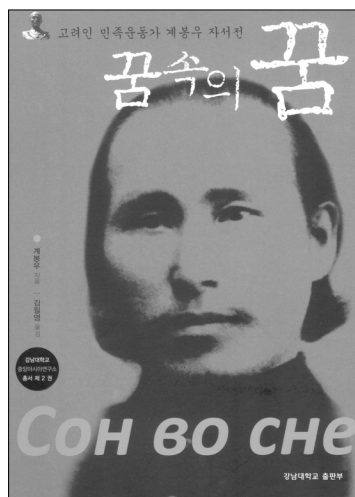
그러나 계봉우 연구는 그의 생애와 활동을 포괄하는 자서전 〈꿈속의 꿈〉이 공간되지 못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들은 계봉우가 노트에 깨알같이 육필로 쓴 것을 다시 복사한 판본으로 그 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으나, 옛 맞춤법에 글자체도 흐려 정확히 전모를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2009년 카자흐스탄에서 계봉우의 행적을 추적, 연구해 왔던 김필영 교수가 계봉우의 육필에 약간의 주석을 붙여 〈꿈속의 꿈〉(강남대학교 출판부)을 펴냈다.

계봉우는 1880년 함경북도 영흥에서 태어나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1910년에 북간도

로 망명한 뒤 연해주, 상해, 중앙아시아 등을 떠돌며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민족운동가이면서 한편으로는 1959년 중앙아시아 크즐오르다에서 영면하기까지 민족어인 고려말을 가르치며 교재를 편찬하고, 민속, 경제, 언어, 문학, 역사 분야의 빼어난 저술을 남긴 계몽사상가이기도 했다.

계봉우는 1920년 북간도 대표로 상해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 참여하는 한편 고려공산당에 입당하여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 그는 이때 독립운동자금 수령을 위해 소련의 레닌 정부에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계봉우는 고려공산당의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파벌투쟁에서 상해파로 몰려 고려군사혁명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르면서 이후 사회주의 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이후 그는 연해주에 정착하여 동포 교육과 민족사, 국문학 연구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구 소련 연해주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할 때, 그도 가족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크즐오르다로 옮겨가 고려사범대학에서 고



려말을 가르쳤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이주 후 1년도 못되어 스탈린에 의해 고려말 교육이 전면 금지되자 세상을 뜰 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저술활동에 전념했다.

〈꿈속의 꿈〉은 그 즈음인 1940년에서 1943년에 걸쳐 가족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쓴 계봉우의 자전적 기록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민족운동에 관여했

던 활동사항, 그리고 북간도, 연해주, 상해에서 접해왔던 많은 민족운동가들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19세기 말 함경도에서 사용하던 말을 소리글 그대로 풀어쓰고 있어 국어학과 풍속사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된다.

2009년은 계봉우 선생 타계 50주기이다. 오남매 중 그의 막내아들 계학림 씨만 현재 크즐오르다에 생존해 있고, 계봉우와 그의 부인 김야간의 묘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의 홍범도 장군 묘역 옆에 있다. 크즐오르다시는 1997년 7월 29일 시내의 한 거리를 ‘계봉우 거리’로 이름 지어 그의 공적을 기렸다.

— 강남대학교 출판부 —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11,12월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공성진	2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두엽	20,000	20,000	조용준	30,000	30,000
곽태원	30,000	30,000	노웅래	30,000		이두희		30,000	조용환	30,000	30,000
권순갑	50,000	50,000	류시경	30,000	30,000	이병윤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경진	30,000	30,000	민향선	10,000	5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광림	20,000	20,000	박두곤	10,000	10,000	아석희	100,000	100,000	조희영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성배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동완	30,000	3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신재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동현	10,000	5,000	박익란	30,000	30,000	이영국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영춘	30,000	3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용규	20,000	10,000	최인국	10,000	10,000
김숙정	1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영림	10,000	10,000	방재섭		100,000	이응국	5,000	5,000	최정호	10,000	10,000
김용덕	50,000	50,000	서영훈	30,000	30,000	이말선	30,000	3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원규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허석현		5,000
김원우	10,000	10,000	송재웅	30,000	30,000	이정재	5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 위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이중락	30,000	30,000	황용만	5,000	5,000
김위현	50,000	50,000	신영연	10,000	10,000	이창복	20,000	20,000			
김자동	20,000	20,000	신준수	20,000	20,000	이학호	5,000	5,000			
김재철	50,000	50,000	심재권	30,000	30,000	이향중	30,000	30,000			
김재홍	100,000	100,000	안영찬	5,000	5,000	이호현	20,000	20,000	◆ 특별회비		
김정욱	100,000	100,000	양기홍	5,000	5,000	이화순	30,000	30,000			
김중배	10,000	10,000	엄근학	10,000	10,000	인순창	30,000	30,000	회원명	11월	12월
김진경	50,000	50,000	엄기남	50,000	50,000	임재경	5,000	5,000	김선현	500,000	
김중수	20,000	20,000	오승숙	10,000	10,000	장은기	20,000	20,000	김위현		100,000
김진모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장팔순	10,000	10,000	김진한		30,000
김진영	5,000	5,000	오정수	20,000	20,000	장 홍	20,000	20,000	김희선		50,000
김호진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정동익	30,000	30,000	민영백		150,000
김충환	10,000	10,000	유광남		15,000	정만기	30,000	30,000	박재승	500,000	
김학근	50,000	50,000	윤희애	30,000		정철승	30,000	30,000	송년회모금합		839,000
김희선	5,000	5,000	유원목		20,000	정환기	10,000	10,000	이동철		360,000
남만우	10,000	10,000	윤경자	30,000	30,000	조기식	10,000	10,000	이상진(골든브릿지)		1,000,000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조영숙	10,000	10,000	내일신문		2,000,000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조세현	20,000	20,000	정관환(성인제약)	200,000	500,000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조영빈	5,000	45,000	(주)아팩철강	2,000,000	12,000,000
									(주)오도	6,000,000	6,000,000